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취임 1년

# 정치 능하나 강한 리더십 아쉽다

로드맵 제시와 의욕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1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토지처분금 활용안, 승려교육 제도 개혁안 등으로 대표되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개혁드라이브는 출발부터 곳곳에서 삐걱거렸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논란은 정치권 외압과 결부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조기사퇴설까지 회자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봉은사 땅값기, 대구 동화사 동영상 제작·배포와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계획 무산 등 개신교의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승려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령’은 시행 전부터 종도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사유재산출연과 관련한 법안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 법안 제정 후 논의가 되면서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성과가 따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님 외에도 집행부가 명분만 믿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다보니 홍보 등에 미숙했다는 지적은 심심찮게 들린다.

승가교육 제도 개혁도 기존 강연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었다. 기본교육 기관 조정과 교과과정 개편, 전문교육기관 다양화, 재교육 강화 등 올곧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연이은 공청회 등으로 설득·무마되긴 했으나, 강원 교직자의 처우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연수교육을 세분화·전문화해 상설운영하고 교육 대상을 분할사주에서 종단의 모든 승려로 확대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연수교육은 주지인사고과제와 연결됐다. 현재는 분할사주지인사 규정을 개정해 초임주지의 자격기준 강화하는 한편, 직할교구에서 시험 시행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주지인사고과제를 향후 전국 교구본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사찰이 종단에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스님 또는 문중을 중심으로 주지직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지인사고과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둬지는 미지수이다.

토지처분금 활용안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도 종도 반발에 부딪혀 명분과 취지가 빛바랜 정책의 한 예이다. 제도 시행은 큰 걸림돌을 만났다. 일부 교구본사가 총무원의 토지처분금 활용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구본사들은 교구별 토지처분금 편차가 커 해당 교

구의 토지처분금은 해당 교구내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같은 교구 이기주의에 의해 토지처분금 활용안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분사주지회의와 중앙종회를 거치며 해당 교구내에서 토지처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33대 집행부는 취지가 좋은 제도를 재료 삼아 레시피적인 로드맵까지 작성했다. 매 월·분기별로는 해당 사업의 진행 정도를 점검하며 행정을 집행해 왔다. 처음 의도와 다르게 정책이 변질되거나 저항에 부딪힌 것은 정치력만 강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자승 스님의 한계라는 지적이 있다.

참여연대 정웅기 사무총장은 “제33대 집행부의 여러 과제들의 시도는 좋았다. 진척이 없었던 것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봉은사 사태는 이같은 스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

제33대 집행부는 수도권포교 강화 방침에 따라 3월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했다. 중앙종회에서 통고에 난항을 겪던 것을 자승 스님이 직접 종회 단상에 올라 종회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켰다. (정치력) 하지만 종정상 인준된 직영사찰 지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주지 명칭 스님과의 갈등으로 6개월 이상을 허비해야 했다. (행정력)

다행스럽게도 자승 스님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발군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교육제도 개혁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에는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만들었다. 봉은사 사태가 벌어지자 화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화쟁위는 출범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11월 15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교역직 총무원 및 재가 총무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교육위원장 현웅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위원장 혜홍 스님 등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교구본사 등 이해관계 따라 언제든 갈등 불씨 내재

봉은사 사태를, 대외적으로는 4대강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메가 이슈를 선점한 덕에 화쟁위는 출범과 함께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제는 제33대 집행부의 최대 성과의 하나로 손꼽힌다.

자승 총무원장은 자신의 권력을 탄생시킨 종책모임간 연대로 인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

종단 내 4대강 반대 목소리와 다르게 7월 8일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민주평통 종교인지원위원 자격으로 4대강지지 발언을 했던 것. 자승 총무원장은 영담 스님에게 불참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15대 중앙종회 선거

에서 자승 스님의 정치적 기반인 화엄회가 압승을 거둬 내부적인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내용과 외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승 총무원장의 지난 1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대중은 총무원장의 강한 리더십에 목말라하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11월 1일 취임 1주년을 즈음한 월례조회에서 ‘공심’을 강조했다.

‘소통과 화합’에서 ‘공심’을 화두로 삼은 자승 총무원장의 취임 2년차 행보에 대중이 주목하고 있다.

글=조동섭·노덕현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 무설研, 종단 수익사업 연구

# 법령 도입·전담팀 편성 필요

천주교·원불교 사례 분석, 식자재 유통 등 제안

조계종이 현재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수익성이란 내실을 기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종책연구소인 ‘무설연구소’는 11월 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사례연구와 사업모델 제안’을 주제로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설연구소는 보고회에서는 조계종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가톨릭과 원불교의 수익사례를 바탕으로 조계종의 수익 사업모델을 제안했다.

무설연구소는 조계종의 현재 재정에 대해 “분담금 수입이 재정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한다. 이처럼 총무원 등 중앙집행부의 재정 자재가 각 사찰이 납부하는 분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사업 집행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설연구소는 “전국 62개 문화재보유 사찰에서 정수한 문화재관람료의 12%에 해당하는 문화재관람료분담금이 24개 교구에서 납부한 중앙분담금을 초과한다는 것은 중앙 종단 역시도 문화재관람료 정수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해왔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예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줄어왔다. 조계종 전체 재정 감소의 영향요인으로 종단의 각종 시설 건립사업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조계종은 현대적 시설 건립이란 외적 확장에 종단 여력을 쏟았지만 상대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데에는 미진했다.”

그 원인으로 무설연구소는 수익 창출 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무설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조계종 사업수입 총액은 7억 원이다.

특히 사업수입의 87% 이상인 6억 2100만 원이 교육연수와 기념관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설연구소는 “그동안 종단 차원에서 수익 창출에 나섰지만 승가문화의 불합치에서 오는 잡음과 종단이 영리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며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종단 안팎에 걸릴 하게 운영되는 사업체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종단이 주도하는 불교적 사업의 성공 모델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설연구소는 장기 모델로 가톨릭, 초기 모델로는 원불교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사례로 들며 대안을 제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재 서울시내 220여 개 성당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성모병원과 종립학교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달 및 구매 전문 기업인 평화드림을 중심으로 부속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용품을 공급하며 사무가구 및 장례용품 공급, 출판·인쇄업, 여객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원불교 중앙교단도 원창회관 신자들의 기부단체를 통해 매년 사업자금 10억 여원을 마련하는 한편 별도의 재정사업부를 두고 수익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무설연구소는 “이웃종교는 종단 산하 기관들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외부로 유출된 재원을 학교법인과 교회 내부, 사회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설연구소는 “조계종도 종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종단 산하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조계종은 종단 구성원의 협력을 보장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설연구소장 범만 스님은 “종단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연구소의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이어 향후 지역사찰과 교구본사 차원의 수익사업 등 장기적으로 우리불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서  
효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개 15(40g) x 60개 (2개월분) 100,000원

Re-Envisioning Prosperity: A Spiritual Forum during the G20 Summit  
Organized by the 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 in collaboration with Women of Wisdom, Korea

#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의 장이 열립니다!!

Seoul, South Korea [November 10-13, 2010]

11월 10일 : DMZ 방문

11월 11일 : 주제-(오전) Emergence of New Global Norms  
(오후) Post-Prosperity : Challenges, Possibilities and a New Understanding of Prosperity  
장소-동국대학교 정각원 (9:30~17:00)

11월 12일 : 주제-Spiritual Perspectives o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장소-한마음선원 안양본원 4층법당 (9:30~16:00)

주최 : GPIW 주관 : (사)지혜로운여성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화체육관광부, 포교원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인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번영이란 무엇인가?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토론하는 지혜의 장이  
워와 같이 개최되오니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일정은 www.hanmaum.org 참조]